

너에게 보내는 나의 사랑의 메시지

- 세상에 대한 모든 눈을 감고 오직 나만 바라봐다오

작성일 : 2009. 12. 29. (화) 오후 12:43

작성자 : 김진미 (부산 열매교회)

<렘 3장 14절> -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

<렘 3장 20절> -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

* 하나님 말씀 *

사랑하는 자야.

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. 너희의 사랑을 원한다.

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나만 바라보아라.

개인의 입장, 사명, 나이, 환경, 어려움

다 버리고 나만 바라보아라.

세상에 대한 모든 눈을 감고 오직 나만 바라 봐 다오.

너희는 내 사랑이다.

다른 것을 보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.

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. 제발 나만 바라봐다오.

너희를 향한 6000년의 그 짝사랑, 이제 마지막 이고 싶다.

나와 결혼해 주겠니? Will you marry me?

(하나님께서 한 쪽 무릎을 꿇으시며,

한 손을 내 밀며 말하시는 장면이 느껴졌습니다.)

내 청혼을 받아다오.

너에게 내민 내 손이 무림치 않게 나에게 대답해 다오.

내 사랑아.

내 심장과 같고, 내 살점과 같고, 내 생명과 같은 내 여인아.

6000년 너를 두고 흘렸던 내 눈물을 네 손으로 직접 닦아다오.

내 눈물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

바다를 이뤄 온 세상을 덮었구나!

내 애절한 사랑의 눈물을 아느냐?

오직 너만을 위한 사랑이었다.

너의 등 뒤에서 흘렸던 내 눈물

이제 뒤를 돌아봐줘.

네 뒤에 항상 내가 있었다는 것! 나 보여주고 싶어.

내 아들을 보내고, 성령을 보내고, 또 다른 자들을 보내어

너에게 말하였고, 나 욕이 없어 욕 있는 자들을 통해

너에게 말한 것을 모르겠느냐?

이제 나를 봐라.

너희 눈앞에 펼쳐진 세계만 보지 말고,
그 뒤에 눈물 흘리며 널 바라보는 나를 이제 봐 다오.

사랑한다. 사랑한다.
너희를 사랑하여 미칠 지경이다.
미치도록 사랑한다는 말!
그 말로도 다 표현이 되지 않는구나!

이제는 너희 내 마음을 받아다오.
나를 먼 신으로 보지 말고,
항상 네 옆에 있었던 한 남자로 나를 바라봐 다오.

너희를 향한 내 사랑. 애절하다.
나는 널 보면 너무 설레인다. 두근두근
불게 상기된 내 모습 보이느냐?
난 너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!
널 향한 내 사랑 다 표현 할 수 없구나!

난 따뜻한 사랑이다.
난 뜨거운 너의 사랑이다.
난 포근한 너의 사랑이다.
난 널 황홀하게 만드는 사랑이다.
난 너를 너무 기쁘게 만드는 기쁨의 근본이다.

왜 그동안 외롭게 살았느냐?
왜 그동안 힘들게 살았느냐?
내 사랑에 너 들어오면
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황홀한 것을 왜 알지 못하니?
이제 정녕 내 손을 잡고 가자.
더 이상 외로워 마! 더 이상 슬퍼마!
나 네 곁에 늘 있다.
나의 이름 불러봐 그럼 나 네 곁에 있다. 알겠지?

내 사랑아. 어떤 순간에도 내 사랑 의심하면 안돼.
항상 네 곁에 있다는 것 의심하면 안돼.
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돼.
나는 바로 네 신랑이야.
다른 자의 사랑을 보고 부러워하면 안돼.
네 곁에 있는 나를 보지 않고
다른 자의 사랑을 보고 부러워하면 안돼.
그럼 나 너무 외롭고 슬프다.
네 곁에 있는 나를 뜨겁게 사랑해 다오.
이제 나 외롭게 만들지마. 알겠지?
이제 내 이름 불러라.

사랑해. 내 사랑의 메시지 있으면 안돼.

오늘 내가 한 이 말 절대 소홀히 보지 말고,
이제부터 진정 네 신랑으로 나를 바라봐줘.

사랑한다. 사랑한다. 너무나 사랑한다.
너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물을게.

내 사랑! 나와 결혼해 주겠니? ^^

- 영원한 너희의 신랑, 나 여호와다